

테네브리 예배는 12 세기 늦은 밤/이른 아침 예배를 기반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묵상 예배이다. 이 예배는 성목요일 성찬식과 함께 혹은 성금요일, 특히 철야 예배에 사용될 수 있다.

예배로 부름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것은 심판이며, 곧 빛이 세상에 왔나니

**그리고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찬송가 (고난과 관련된 찬송 중)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중앙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와 함께 14 개의 초를 이 시점에 점화하거나 예배가 시작 전에 켜져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초 하나씩 꺼진다. 읽을 수 있는 빛이 충분하다면 찬송가 혹은 찬송가의 한 절을 이야기 사이에 넣을 수 있다. 또는 찬송가를 암송하여 부를 수도 있다. 공과 및 찬송가 참조.

## 1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봉독자는 첫 번째 초를 끈다.*

## 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봉독자는 두 번째 초를 끈다.*

## 3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봉독자는 세 번째 초를 끈다.*

## 4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봉독자는 네 번째 초를 끈다.*

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봉독자는 다섯 번째 초를 끈다.*

6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봉독자는 여섯 번째 초를 끈다.*

7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봉독자는 일곱 번째 초를 끈다.*

8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봉독자는 여덟 번째 초를 끈다.*

9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으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봉독자는 아홉 번째 초를 끈다.*

10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 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봉독자는 열 번째 초를 끈다.*

## 11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봉독자는 열한 번째 초를 끈다.*

## 12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봉독자는 열두 번째 초를 끈다.*

## 13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마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봉독자는 열세 번째 초를 끈다.*

14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봉독자는 열네 번째 초를 끈다.*

15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중앙에 놓인 그리스도의 초를 끈다. 다운로드한 지진 소리를 듣다. 마지막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읽는다.*

16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18:1-19:42)

*조용하고, 예배당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명만 남겨두고 어둡게 유지하다. 이제 예배당은 이제 부활절 새벽예배까지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다. 마지막 찬송가와 축도는 다가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표시로 생략할 수 있다.*

찬송가

축도

평안히 예배당을 떠나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과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금요일 철야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용히 예배당을 떠난다.*

저작권: “테네브리 예배 예식서(A Service of Tenebrae)” Copyright © 1979, 1986 by Abingdon Press; 저작권 1992 연합감리교출판사